

지역 소식통

정읍시, 토양 분석 능력 우수성 검증완료

정읍시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고 4~6월까지 진행된 '토양검정 숙련도 평가'에서 pH, EC, 유기물, 유효인산 등 토양 화학성분 8개 전 항목에서 A등급을 받아 분석능력이 검증됐다.

160개소가 참가한 이번 숙련도 평가는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제시한 2개의 토양시료에서 각 8개 항목을 분석해 분석값을 검증함으로써 분석능력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매년 4500점 이상의 토양을 분석해 토양 양분상태를 점검하고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에 맞는 비료 사용 처방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토양관리와 영농기술을 지도해주고 있다.

토양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경지에서 골고루 뜯 토양을 봉투에 담아 제2차 농업기술센터 농업환경 종합분석실로 방문 의뢰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우수종돈 보급

양돈농가 경쟁력 높인다

정읍시는 지역 내 양돈 산업에 발전을 위해 우수종돈 농가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수종돈 농가보급사업은 유전능력이 확인된 종돈(두록, 랜드레이스, 요크셔) 구입을 지원해 우수한 정액 생산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2300만원(국비 50%, 시비 50%)으로 우수종돈 19두에 대한 보급을 지원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 성료

약 17만명 방문... 명품 농특산물 복분자·수박·장어 할인판매 등 프로그램 다채

고창군이 지난 21~23일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에서 열린 '풍천장어와 함께하는 제2회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가 약 17만명의 방문객 수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축제에서는 고창군의 명품 농특산물인 복분자, 수박, 장어 할인판매와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 진행, 공연 등을 즐길 수 있었다.

수박빨리먹기대회, 수박&장어 시식 행사, 고깔고깔 수박찾기 게임, 장어잡기 행사, 장애물 3종경기, 수박가방대회 등 프로그램 진행됐다. 또한 고창군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존을 마련하여 군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앞서 21일 개막식에선 '나혼자산다'에 출연하는 박지현과 '천태만상' 윤수현의 축하공연이 진행돼 전국의 팬클럽을 비롯해 수많은 관람객이 찾아와 축제를 즐겼다.

이외에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버블&블론쇼와 마술쇼 공연을 하는 키즈콘서트, 버스킹 공연, 신나는 예술버



고창군이 지난 21~23일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에서 열린 '풍천장어와 함께하는 제2회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가 군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스 공연 등의 공연이 실 틈 없이 이어졌다. 고창군은 전년 대비 1만명이 증가한 17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했다. 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여름철 건강을 책임지는 고창 대표 농특산

물인 복분자, 수박, 장어를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귀한 고창산 복분자를 축제기간 동안 구입할 수 있어 전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철저”

이학수 정읍시장, 집중호우 피해·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강조

이학수 정읍시장은 24일 오전 영상 간부회의를 갖고 “장마철 집중호우에 철저지 대비해 시민 안전을 지키고 시설물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각 부서와 읍면동에서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 취약지 등을 점검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하라”고 했다. 이어 “물놀이 시설에 안전요원을 반드시 배치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중화 사업 등 각종 공사 추진 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조했다. 이 시장은 “지중화 사업 등 각종 공사에서 작업자 위주의 공사가 진행되면 시민 불편이 반드시 발생한다”며 “각종 공사 추진 시 시민불편 제로화 방안을 모색한 이후 공사를 진행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

부안군 공약이행평가단, 현장방문 진행

부안군은 지난 21일 민선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공약이행평가단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공약이행평가단은 지난 1월 부안읍 권 현장방문에 이어 이번 2차 현장방문에서는 부안형 수소산업 플랫폼 확장, 공항 마리나항만 연계 크루즈 기항지 조성, 줄포만 노을빛 지방정원 국가정원 지정 기반 조성,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등 중요 공약사업 4곳의 현장을 방문했다.

평가단은 줄포만 노을빛 지방정원과 공소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현재 추진 중인 갯벌치유센터 조성,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체류형 정원 조성, 친환경 에너지

지 선도도시 조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공항 마리나항만 조성 예정지와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현장에서는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김재희 공약이행평가단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권익현 부안군수의 민선8기 중요 공약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군 발전을 위해 의견을 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공약실천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과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주민참여형 스마트 도시계획 리빙랩 운영

주민참여단 발대식 개최

부안군은 지난 22일 부안청년UP센터에서 부안군 스마트 도시계획 리빙랩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이날 리빙랩 주민참여단 발대식은 부안군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부안군 도시문제의 개선 아이디어 발굴과 함께 주민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주민참여형 맞춤형 서비스 구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 도시계획 리빙랩은 군민이 직접 주거하는 현장을 실험실로 삼아 군민이 문제해결 과정에서 주도력을

발휘하도록 직접 참여하며, 군민과 수요자, 전문가가 함께 스마트 기술을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주민 주도 연구·실험 공동체를 의미한다.

주민참여단 모집을 통해 선발된 27명의 주민들은 7월까지 총 3회에 걸친 리빙랩 워크숍을 수행하고 부안 지역 현안과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 참여한 주민참여단원들은 워크숍 수석 이후, 본격적인 리빙랩 활동에 앞서 스마트 도시의 이해와 리빙랩 운영에 대한 강연을 통해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리빙랩 참여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주민참여단원들은 전문 부안조사인행자(퍼실리테이터)와 함께 부안군에 거주하며 겪고 있는 불편한 점과 지역 현안 도출을 위해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며, 교통, 방범·방재, 환경, 문화·관광·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도시문제를 그 원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군은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기존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부안군 맞춤형 스마트 도시 5개년 계획을 2024년 12월까지 수립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 및 주민참여단을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착한가격업소서 정읍사랑상품권 결제 시 5% 캐시백 프로모션 실시

정읍시가 7월부터 착한가격업소에서 정읍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소비자에게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 해주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시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프로모션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6월 말 기준 정읍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총 25개소이며, 이중 23개소가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시민들은 착한가격업소에서 정읍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기존 상품권 할인율 10%와 함께 프로모션 혜택 5%를 더해 총 15%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1인 월 캐시백 적립 한도는 최대 3만원으로 결제 시 즉시 캐시백 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 연구용역’ 보고회

고창군이 24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고창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 농업과 식품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번 보고회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한 4개 분과로 구성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위원 등 30명이 참석했다.

고창군은 ‘스마트 농업으로 행복한 미래를 짓는 농생명산업 허브, 고창’이라는 비전 아래 △지속 가능한 농업 구조개선 △농산물 대량유통 생태계

조성 △한끼 사는 농업·농촌 고창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인재육성 및 거버넌스 개선이라는 5가지 부문별 전략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 고창 땅콩 고부가가치화 사업, 블루푸드 산업지원 센터 건립 등 고창의 농산품과 지역 특색을 반영하여 ‘고루 잘사는 풍요로운 농어촌 실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고창 농업의 발전방향 및 비전을 제시하고, 농촌관광, 4차산업 혁명 등 정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선도적으로 농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